

# 여성, 그 종말의 궤적을 밟는 희생양

인게보르크 바하만의 「죽음의 방식」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토록 절망적이면 서 또한 설득력 있는 소설이 있을까? 20대에 읽어도, 30대에 읽어도 결코 늙아 않는 바하만의 언어가 여성에 대한 공공연한 역사의 음모를 고발하고 있다. 언어의 가능성보다는 언어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 그 언어로 구체화되는 삶의 허구성을 들추어냄으로써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씬표가 이 작품에서도 많이 눈에 뜨인다.

특히 「화니 골드만을 위한 진혼제」에는 바하만 자신의 활자화된 목소리에 앞서 활자의 옷을 입힐 수 없는, 혹은 선불리 옷을 입히기를 자제한 듯한 행간의 여백에서 그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다종의 대답들이 서로 공명하는 느낌이 든다.

하인리히 뵐이 “언제나 두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는 바하만이지만 그녀조차도 다른 (여류)작가들처럼 자신의 여성성을 받아들이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삶의 번두리를 서성여야 했고, 그 고뇌는 작품 속에서 한뼉한 절규로 항변되어 있다.

본래 「죽음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번역·소개된 「말리나」와, 이 책의 두 편의 장편 「프란짜의 죽음」과 「화니……」가 3부작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한다. 이 3부작을 통해 바하만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요) 당하는 삶과 죽음의 3가지 다른 방식들을 전개하고 있다. 앞의 두 소설이 강요당하는 죽음에 대한 반항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 「화니……」의 경우는 가장 미성숙의 상황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화니의 삶은 피상적이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지한 채 노려보고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것이다.” 그녀가 생존을 위해 벌인 투쟁이란 “그저 우아하게 빈정대고 밝은 웃음을 터뜨리는 일”이었다. 그녀를 소유했던 남자들에게도 그녀는 본질적이지 못했다. 단지 그 남자들로서는 화니가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마흔다섯의 주름살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서글픈 종말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난데없는 증오감이 자신의 영혼을 꽂아 움켜잡는 것을 깨닫고 몹시 놀라워한다.

화니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남자들은 화니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삶 전체가 그녀에 대한 일종의 모의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종말의 궤적을 밟아온 것이라고 이 사회는 판결을 내릴 것이고, 자의식을 깨칠 증오 역시, 재판의 묘미를 더해줄 하나의 변증으로 남을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는 바벨탑의 문명과 그 무거운 짓눌려 점점 미개해지는 내면의 어두움-불안심리, 폭력(권력)의 의지, 사디즘적 욕구 등-에 여성은 말없는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 책은, 모든 선(善)한 철학과 도덕이 념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시적인 억압과 굴종이 허용된 관례들 속에서, 그리고 범죄병 원체로서의 사회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완력을 제1의 가치로 숭배하는 이성의 황무지를 환기시키고 있다.

## 채인선

경기도 안양시 미산2동 294-3 두산빌라 7-302

# 꿈을 일구는 일꾼 이야기

백기완의 「우리 겨레 위대한 이야기」

흔히 옛날이야기하면 오래되어 쓸모없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것쯤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 글쓴이 또한 덜 머물렀을 때는 그와같이 쉽게 가름하였으나, 조금씩 우리것에 대한 느낌과 사랑이 튼튼히 다져져 갈수록 우리 옛이야기는 더욱 알차게 익어가기만 한다.

싸움터나 놀이판에서 자주 뵈던 백기완씨가 그곳에서 즐겨 얘기해주었던 것을 모듬어 한뼉의 책으로 내놓았다.

겨레의 울퉁은 삶을 바로 살아가며 알짜배기 이야기만을 가려 뽑아 들려주는 그는 정말 보기도문 이야기꾼임에 틀림없다. 첫장에서 그려낸 여러인물 가운데 먼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제나라 사람들과 땅을 지켜낸 쇠뿔이, 아름다움을 맨몸과 온마음으로 빛낸 너울내, 그리고 우리네 살림살이가 빛어내고 새벽처럼 기다리던 새뚝이의 여러모습을 손꼽을 수 있다. 그밖에 웃음과 울음으로 뭉쳐진 억척바보 말뚝이,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 가장 못된 놈의 으뜸으로 개막난이를 들고 있다. 또한 끝으로 목꽃이의 굳센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번째 장에서는 우리네 살림꾼의 참뜻과 그 뿌리를 찾아 밝히고 있다. 이밥에 고기를 실컷 먹는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서 떨쳐 일어나는 골곳메 이야기, 그 벽찬 나라인 찬우물골을 일구기 위해 뜻을 한데 모아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술한 가지내 가슴에 불을 밝혔던 기다려지는 사내 술개의 빼어난 품새를 그려내고 있다. 또한 휘몰아치는 셋바람을 이겨내며, 그 어떤 걸림돌이라도 맞서 갈라칠 수 있게 해주는 신바람, 그와 함께 시간이의 설움애기를 들려주고 있다. 덧붙여 '사람은

어떤 때에 물매를 맞을까?'라는 물음에 정을 받을 그릇이 없는 놈, 뒷집지고 나물라라 자빠진 놈, 허우대만 멀쩡하게 생겨 얼이과곤 제대로 박히지 못한 놈을 들고 있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겨레의 여러 살림에 얽힌 뜻풀이를 꼼꼼히 밝히고 있다. 난장판, 맘판, 거기서 나온 쟁풀이 그리고 풍물, 줄타기놀이 등을 보기까지 들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또다른 모습으로서 범에 대한 사무치는 녀두리, 멀쩡한 우리것을 제껴두고 덩그러니 물건너 온 것만을 좋아하는 짓거리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그의 옛이야기는 살아 숨쉬며 몇명의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즈러진 삶을 바로 잡고, 뒤틀린 살림살이를 가지런히 펴는 일을 맡아 땀흘려 가꾸기도 하지만, 빼앗겼던 일터를 되찾는 싸움꾼 노릇도 하고 있다. 또한 넉넉한 씬터를 마련하느라고 애쓰는 놀이꾼의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잘못된 것, 그릇된 놈들에 대한 끊고 자르고 부수는 싸움터와 잘린 겨레를 잇고, 닫힌 가슴을 활짝 열며, 나누어진 핏줄을 서로 맺는 일터에 다시금 나서야 할 때임을 그는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힘찬 싸움과 신바람난 일이 열린 놀이판으로 모두 모아져서 풀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 겨레의 이야기는 새롭게 펼쳐져 나간다고 하겠다.

## 김요안

서울 은평구 갈현2동 303-5 · 학생

#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90. 2. 10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 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어> 이야기—

- 주요목차 ●농부<마이어사건>의 충격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현재 성경은 위서(偽書)인가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예수 탄생의 비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IBM 보오젤 박사의 증언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셈야제>

- 오다까 오시아 역음 ●정우인 옮김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 3,500원

시 어 사 대표전화 : (02)549-6817 F A X : (02)549-6816

전국책방과 지하철에 있습니다.

도서주문 진영서적 : (02)272-5871  
을지서적 : (02)751-8991

# 거대한 '농담'에 함몰된 자유의지

밀란 쿤데라의 「농담」

우리 삶에 있어서 농담은 보통 진실함이나 진지함의 반대편에서 있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체코작가 쿤데라의 1967년 발표작 「농담」은 바로 그러한 농담때문에 결정적인 인생의 전기를 맞았던 한 주인공의 이야기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애인을 놀려주려고 엽서에 쓴 그의 농담은, “낙천주의는 인민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에서는 우둔의 약취가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라는 짤막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었으며 자신의 일시적인 기분 때문이었다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그것이 자신의 진실이며 객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당의 비판과 함께 대학에서 추방된다. 그로부터 그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어리석은 농담들로 괴물처럼 불어만 가는 나쁜 농담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설의 말미에서 진실함과 진지함, 농담과 우연에 대한 거시적 반성에 이르게 된다.

“내 인생의 전체 이야기가 실수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엽서의 저 어리석은 농담으로, 저 우연으로, 저 년센스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나의 인생사를 철회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벌어진 실수들이 단지 나의 실수들만이 아닐진대, 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던 말인가? 누가 내 엽서의 어리석은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였던가?……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실수들은 너무도 흔하고 일반적이어서 이들은 사물의 질서 속에서 더이상 예외도 일탈도 아니며, 오히려 이들이 사물의 질서 자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였던 말인가?…… 만일 역사가 농담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하여 나는, 나와 나의 인생 전체가 훨씬 더 광대하고(나로서는 전혀 해아릴 수도 없고 시계도 미치지 않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농담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농담을 철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화자가 수시로 바뀌고 묘사하는 시간도 여기저기를 쏘다녀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읽다가는 해매기 쉬운 소설이다. 주제가 잡아내는 사태 자체가 기가 막히게 언어적이어서 언어 이외의 매체로는 전달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욱 정이 가는 소설이다. 함께 할 사유의 공간과 읽는 재미가 골고루 갖춰진 좋은 작품이다.

## 강상진

성동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2동 1203호 · 대학원생

#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박요한 장편소설 「불타는 땅」

내게는 神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유물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문득문득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에서조차 거스를 수 없는 神性を 발견하곤 나를 둘러싼 外界의 거대한 위력 앞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는, 말하자면 ‘잡신론자’쯤이나 될까. 神이 많아서 없는 역설적인 상태 탓인지 나는 종교에 관련된 소설 읽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헛배는 부는데 실제로는 허기진 나의 神, 절대성에의 갈망을 잠시나마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제1회 통일문학상 수상작인 박요한 목사의 장편소설 「불타는 땅」 역시 ‘예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종교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관념의 공복이 잠시 채워져 머리만 커지고 팔, 다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기왕의 종교소설 읽기의 체험과는 다른 ‘힘의 솟구침’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무엇보다 예수 당대의 상황을 정제된 성경속의 활자로부터 끌어내어 오늘 우리의 현실로서 펄떡거리며 살아있게 하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주둔하에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억압적 상황과 그것을 타파하려는 몸부림이 참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을 읽는 기쁨의 또 하나는 문체가 가지는 ‘감각성’이다. 야훼신, 예수의 이적, 마귀의 등장 등 신화적(?) 상징성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문체는 정제되지 않음, 우회하지 않음, 난해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지니는 감정을 벌거벗은 육질의 감각 그 자체로 독자를 향해 퍼붓고 있다. 이는 소설 속으로 독자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매력이다. 햇빛에 그을리고 노동으로 단련된 남성의 근육 불끈 솟은 팔뚝을 보는 가벼운 흥분같기도 한.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소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중층적 구조로 인한 해석의 多意性이다.

굳이 해방신학의 세단계 해방의 개념(정치적 해방, 인간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에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식민지조국이라는 상황에서의 진정한 해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들이 소설에서는 에벳과 아카을, 요한과 유다를, 나아가 바라바와 예수를 대비시키면서 끈질긴 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 답을 책장 안에서 내려놓고 있지는 않다.

작가가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겪고 미국으로 건너가 황폐한 이민생활을 하는 동안 “새로운 조국을 창건하는 혁명가가 된 기분”으로 썼다는 이 소설은 책장을 덮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방되어야 하는가”를 통렬하게 물어온다. “도탄에 빠진 식민지백성을 해방시킬 민중의 지도자는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 이승미

서울 종로구 신영동 167-1 학원강사.

# 한국의 출판계가 인정한 편집학교

마감 6월23일  
개강 6월25일



편집을 소설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덕택에,  
호기심으로 입학해서 전문인이 되어 나가는 곳.  
취미가 직업이 되는 편집자의 ‘끼’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감성을 편집에 싣고,  
문화의 힘을 믿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편집을 아는 사람이 교재에도 능숙하듯  
수료생들의 인간관계도 베스트셀러!  
그래서 취업률도 자타가 인정하는 ‘95%’입니다.  
—— 본 센터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수료생들의 취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시기를 놓치시면 인력채용이 원활치 못하니  
지금 곧 문의하십시오. (본 센터 D·M 발송물 참조)

##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대한민국편집디자인센터

代) 812-1715~6 Fax 814-3387  
노량진전철역 앞